

# 점복자를 찾아가는 여성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Experiences of Women Who Visit a Fortune Teller -focused on women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채가영, 주은선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Gayoung Chae(cgy82@naver.com), Eunsun Joo(esjoo@duksung.ac.kr)

### 요약

본 연구에서는 20~30대의 젊은 여성들이 점복자를 찾아가는 심리적 동기와 점복 경험을 통해 얻는 심리적 이득을 알아봄으로써 상담에 보완할 문화적 요인을 찾고, 상담에의 접근을 방해하는 요인을 함께 알아봄으로써 한국인들에게 보다 적합하고 편안한 상담의 형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방법을 사용하여 참여자들의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참여자들은 심리적 지지를 받고 싶은 내적 동기를 가지고 점복자를 찾아가고, 그러한 심리적 요구를 점복을 통해 채우면서 상담에서 얻을 수 있는 심리치료적 효과를 경험하며, 문제해결의 대안을 얻고 있었다. 한국 내담자들의 즉각적인 문제해결과 방향제시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좀 더 지시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해줄 필요가 있고, 운명의 수용을 통해 내담자가 겪는 고통에 대해 억울한 마음에서 벗어나 극복의 의지를 갖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심리적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로 이어지지 않는 주된 이유는 상담이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정보를 찾기 쉽지 않고, 여전히 상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중심어 : | 점복문화 | 심리상담 | 한국적 상담 | 한국 문화와 상담 | 질적연구 | CQR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ltural factors that complement the counseling by examining the psychological motivation of the young women in their 20s and 30s and the psychological benefits gained from the augural experience, And to suggest a more appropriate and comfortable form of counseling. For this, interview data of participants were analyzed us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CQ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articipants were searching for the fortunetellers with intrinsic motivation to get psychological support, experiencing the psychotherapeutic effects obtained from the counseling while filling the psychological needs through the mobs, and gaining alternatives to solve the problems.

■ keyword : | Psychological Counseling | Korean Counseling | Korean Culture and Counseling |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 CQR |

## 1. 서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개개인의 삶도 예전과 다르게 분주하고 복잡해지면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상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1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1]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 필요가 특히 절실하다.

상담은 내담자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역할수행을 하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 신념, 생활양식 등에 관해 이해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내담자가 속해있는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2].

상담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상담이라고 할 수 있는 점복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점복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한국식 인생 상담으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3].

점복은 관계내적 존재로서의 인간관을 가지며 자기 초월을 지향하는 동양의 인간관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4]. 많은 한국인들은 새해가 되면 그 한 해 동안의 가족의 운과 건강을 점치고, 결혼이나 이사와 같은 집안의 중요한 일이나 사업상의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점을 쳐서 택일을 해왔다. 또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점복자를 찾아가서 점을 치고 점괘에 대해 듣는다. 점복자는 점을 쳐서 미래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바로 알려주는데, 그 해결방안은 주로 굿이나 부적의 사용이고 그것을 통해 불운을 막고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즉, 점복의 목표는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며, 당면한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이다.

점복과 상담은 모두 점복자와 문복자, 상담자와 내담자의 일대일 관계를 통해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점복은 점괘나 굿 등을 사용하여 그때그때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한다면, 반면에 상담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내담자의 내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 및 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시대가 변하면서 점복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형태를 달리하여 그 맥을 이어 오면서 오늘날까지도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 개입하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서적과 신문뿐만 아니라 전화, 인터넷을 통해서까지 점을 직접적이고 간단하게 대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점복문화는 대중문화 속으로 파고들었다.

2012년 시장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5]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운세서비스 이용경험에 관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6%가 운세서비스를 경험했고, 인터넷을 통해 운세서비스를 이용했다는 답변(82.7%, 중복응답)이 가장 많았다. 통신기기와 인터넷의 발달로 점복 시장에서도 전화 상담이나 인터넷의 점복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은 보다 손쉽게 점복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인터넷의 운세서비스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재미와 호기심으로 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점집을 찾아가 점을 본 경우도 60%(중복응답)가 넘는 것으로 보아 인터넷의 운세서비스는 심심풀이로 재미삼아 이용하면서 직접 점복자를 찾아가 점을 보는 비율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 중 20~30대 여성의 이용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세대가기 때문에 인터넷 운세서비스 경험이용률이 높아서 전체 이용률이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성세대보다 새로운 것에 열려있고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전통문화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복의 이용률이 높은 이유를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운세를 통해 얻는 것을 ‘마음의 위안/걱정의 감소’(59.7%)로 꼽았는데, 점을 보는 가장 큰 이유일 수 있는 ‘불확실성의 해소’(14.7%)와 ‘미래를 위한 준비/대비’(11.5%)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점을 보는 궁극적인 이유가 심리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걱정거리를 해결하기 위함이지만 그 이면에는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집을 보러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많은 한국인들이 어떤 이유로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받기보다는 점복자를 찾아가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국인의 문화 속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도움을 구해야 할 대상으로 상담 관련 전문가를 찾는 것이 익숙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즉 한국인은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심리적, 환경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상담 및 심리치료가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사회 문화적 장벽이 높음을 의미하고 있다[6].

본 연구에서는 상담의 토착화와 보편화를 위하여 전통적인 상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점복문화를 통해 상담에 고려할 문화적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점복과 심리학 및 상담과의 연결 및 통합을 시도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성숙(2005)[7]의 연구에서는 점복의 특성을 참작하여 상담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박은경(2008)[8]의 연구에서는 점복에 대한 태도 척도를 개발하고, 점복에 대한 태도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밝혀내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점복의 특성을 문헌고찰을 통해서만 고려하였거나 점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상담에 필요한 문화적 요소는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김영재(2003a)[9]와 김영재(2003b)[3]의 연구에서는 모두 근거이론 방법을 이용하여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려 하였고, 초월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했을 때, 문제해결의 방편으로 점복을 택하는 이유와 그 안에 어떠한 심리적 요구가 있는지, 그리고 점복의 어떤 특성들을 통해 그러한 심리적 요구를 채우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젊은 여성들의 신점을 보는 욕구와 경험에 초점을 맞췄는데, 현대에는 사주라고 하는 역리점복이 더 성행하고 있지만 점복 자체는 무속신앙에서 출발한 것[9]이고, 신점은 한국전통문화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무속의 정신이 가장 잘 깃들여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신점으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신점을 택하고 찾아가는 행동 이면의 심리와 그들의 심리적 요구 및 주관적인 경험을 깊이 있고 상세하게 알아보았다. 심리적 요구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담서비스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봄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결과와 제안점을 도출해내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개인의 독특하고 생생한 내적 경험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CQR이 적합하다. CQR은 반 구조화된 면담계획안을 사용하여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참여자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귀납적 방법을 통하여 참여자의 관점으로부터 현상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내기[9] 때문에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 선택되었다. CQR은 양적 연구가 지닌 단점을 보완해주면서 여러 명의 평정자의 합의 과정과 감수 과정을 거침으로써 연구자의 편견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10].

장유진, 최보영(2011)[11]의 연구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가, 학력이 높을수록 상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대졸 이상 학력의 20~30대 여성을 잠재적 내담자로 보고 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잠재적 내담자라고 할 수 있는 참여자들이 점복을 경험하면서 겪는 심리적 체험을 통해 심리적 요구를 알아보고 점복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상담에 보완할 문화적 요소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상담에의 접근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알아봄으로써 한국 문화에 좀 더 적합하고 편안한 상담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점복자를 찾아가는 심리적 동기와 이득은 무엇인가?

둘째, 점복행위를 통해 경험한 내용은 무엇이고,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

셋째, 상담보다 점복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1년에 1회씩 3년 이상 꾸준히 점을 봐온 20~30대 초대졸 이상 학력의 여성 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점복의 종류는 신점, 역리점, 몽점, 작명, 해명, 풍수점, 상점 등인데[12], 본 연구에서는 신점을 보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결혼·육아·홈인테리어를 주제로 하여 20~30대 젊은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 인터넷 카페와 연구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를 내어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참여자들의 거주 지역은 서울이나 경기 지역이었고, 참여자들의 집이나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면담 시간은 40~60분 사이였다.

모든 참여자들은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관한 설명과 비밀 보장, 참여 도중 원치 않으면 중단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개별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 후 면담이 진행되었다.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고 녹취를 하였으며, 녹취내용은 모두 축약록으로 작성하였다.

참여자들의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 2. 문항제작

본 연구에 앞서 2명의 참여자에게 예비 면담을 실시한 후, 이에 대한 분석과 감사자의 지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질문 문항들이 확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점을 보는 심리적 경험 및 체험과 상담 경험, 상담에 대한 인식에 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면담을 위해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인적 정보

사례No.	연령	직업	학력	거주지역	결혼여부	점복경험 빈도
1	33	주부	대졸	종로구	기혼	13년간 1년에 5번
2	39	자영업	초대졸	의정부	기혼	5년 이상 1년에 4번
3	32	주부	대졸	강동구	기혼	9년간1년에 1~2번
4	22	대학생	대재	강서구	미혼	4년 이상1년에 1~3번
5	22	대학생	대재	동작구	미혼	4년간1년에 2~3번
6	28	서비스업	대졸	인천	미혼	7년간 1년에 3~4번
7	25	대학생	대재	송파구	미혼	5년간1년에 2번
8	22	대학생	대재	강동구	미혼	3년간1년에 1번
9	25	대학생	대재	도봉구	미혼	7년간1년에 2~3번
10	20	대학생	대재	도봉구	미혼	3년간1년에 1~2번
11	25	대학생	대재	도봉구	미혼	집안에 무당이 있어서 수시로 점을 봄.
12	24	대학생	대재	도봉구	미혼	8년간1년에 2~3번
13	25	대학생	대재	마포구	미혼	4년간1년에 2번

표 2. 질문지

연구문제	번호	질문지
점복자를 찾아가는 심리적 동기와 이득은 무엇인가?	1	어떤 문제들로 점복자를 찾아가고,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2	어떤 경로로 점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까?
	3	점을 보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도움을 받으니까?
점복행위를 경험한 내용은 무엇이고,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	4	점을 보고 나서의 느낌은 어떻습니까?(심리적 경험)
	5	점복자에게 어떤 느낌을 받으니까?(관계)
	6	점복자의 말을 얼마나 신뢰하고,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받으니까?
	7	어떤 점 때문에 점을 자주 보게 되십니까?
상담보다 점복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8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땠습니까? -받아본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9	상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받아볼 생각이 있으신지요?
	10	상담보다 점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3.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Clara E. Hill(2011)[13]의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CQR은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한 인터뷰를 해서 얻은 자료에 근거해서 현상들을 기술하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귀납적 추론방식으로 진행된다[14].

3-5명의 분석자(judges, primary team)로 합의팀을 구성하고, 합의를 통해 자료의 의미를 영역(domain), 핵심개념(core ideas), 교차분석(cross-analyses)의 절차로 판단한다. 합의팀이 분석한 결과는 최종적으로 감사자(auditor)의 검토를 거친다[15]. 자료 분석 과정에서 분석팀은 먼저 자료를 독립적으로 분석한 다음, 각 분석자들 간의 일치와 불일치를 확인하고, 그 차이점을 논의의 통해 합의해 나가는 절차를 따른다. 또한 분석팀이 중요한 자료를 보지 못하거나 자료 해석에 편향된 관점이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자가 분석팀의 합의 판단을 점검하는 절차를 따른다[16].

본 연구의 분석팀은 연구자 본인을 포함하여 상담심리전공 석사 수료자 3명의 합의팀과 상담심리박사학위 소지자이자 상담경력 20년의 상담심리전문가 1명의 감

수자로 구성되었다. 합의팀은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에 관한 원서를 번역하면서 CQR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다른 연구자들의 CQR 분석 작업에 각각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합의팀 중 한 명은 본인의 연구를 CQR로 분석하여 학술논문을 게재하였다.

### III. 연구결과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QR)에 근거하여 13개의 면담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총 6개의 영역과 2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6개의 영역은 좀 더 큰 의미의 3개의 중심개념에서 세분화하여 구성하였다. 첫 번째 중심개념은 '점복자를 찾아가는 동기'로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의 2개의 영역으로 나누었고, 두 번째 중심개념은 '점복의 체험'으로 '긍정적 체험'과 '부정적 체험'으로 세분화했으며, 세 번째 중심개념은 '상담의 경험과 인식'으로 '상담 경험'과 '상담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서 총 6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교차분석 결과로 각 영역의 범주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교차분석 결과

중심개념	영역	범주	빈도
점복자를 찾아가는 동기	1. 외적 동기	문제의 발생	일반적13
		주변의 영향	일반적13
	2. 내적 동기	심리적 지지를 원함	일반적13
		미래의 예측 및 대비	전형적9
		영적 존재나 운명에 대한 믿음	전형적7
		조언이나 해답을 구함	전형적7
점복의 체험	3. 긍정적 체험	점괘가 적절한 경험	변동적4
		심리적 해소와 위안	일반적12
		조언이나 해답을 얻음	전형적10
		점괘의 선택적 참고와 결정	전형적8
		미래를 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함	전형적7
		점복자의 인간적인 태도	변동적6
	4. 부정적 체험	운명의 수용	변동적4
		심리적 성장	변동적3
		예기 불안	전형적8
		지나친 의존	변동적6
		불확실한 미래예측	변동적5
		위압적인 분위기	변동적4
상업적 권유에 대한 거부감	변동적3		
경제적인 부담	변동적3		

상담의 경험과 인식	5. 상담 경험	상담자의 부정적 태도를 경험함	변동적4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를 경험함	변동적3
	6. 상담에 대한 인식	비밀보장과 낙인에 대한 불안	전형적7
		부정적 이미지나 편견	전형적7
		정보의 부족	변동적6
		상담에 대한 기대 및 바람	변동적6
		시간과 비용의 부담	변동적4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부족	변동적2

**중심개념 1. 점복자를 찾아가는 동기**

참여자들은 점을 보는 다양한 이유들을 보고했는데, 외부적인 요인인 외적 동기와 심리적 요인인 내적 동기로 구분하였다.

**영역1. 외적 동기.** 모든 참여자들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시’(일반적) 점복자를 찾아가고, ‘주변의 영향’(일반적)으로 점복자를 찾아가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제의 발생**

“진로고민도 있고 뭐 이것저것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제가 전공하고 또 안 맞는 거 같아서 이것저것 물어보러 다녔고..”(사례1)

“아무래도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돈을 만지는 직업이고 또 사람을 써야하는 직업이니까 그때 그때 매출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사람이 바뀌면 어..”(사례2)

**주변의 영향**

“직장 선배가 알려줘서.. 아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맞춘 거예요, 그 선배 일을. 그니까 남자친구가 없었는데 ‘너 한, 두 달 안에 남자친구 생겨서 내년에 결혼할거야’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저도 알려달라고 졸라서 그렇게 간 경우도 있고, 대부분 유명하다고 하는 데는 그렇게 소개를 받아서 갔어요.”(사례1)

**영역2. 내적 동기.** 모든 참여자들은 불안을 해소하고 위로를 받으며 심리적으로 의지를 하고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는 등 ‘심리적 지지를 얻기 위해’(일반적) 점을 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많은 참여자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전형적), ‘영적 존재나 운명을 믿기 때문에’(전형적), ‘조언이나 해답을 얻기 위해’(전형

적) 점을 보며, 몇몇 참여자들은 ‘점괘가 적중한 경험’(변동적) 때문에 점을 계속 보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리적 지지를 원함**

“그냥 잘될거야 이런 얘길 듣고 싶은.. 괜찮을 거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그런 거. 좀 불안정한 지금 현실이, 아무것도, 괜찮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위안을 좀 받고 싶은 그런 것도 좀 있어요.”(사례6)

“근데 스스로 판단이 안 설 때 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확신을...그렇게 확실하면 보러 갈 필요도 없고, 근데 어떤 두 가지 문제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되고, 이게 분명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고 불안하고 이러니까.”(사례12)

**미래의 예측 및 대비**

“그런 식으로 연초에 좀 뭔가 새로운 다짐들? 자기를 돌아보는 건가? 그런 게 필요하긴 한데 그런 쪽에서 좀 그쪽에서도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중략> 그래서 특히 연초에 그런 걸 들으면은 아 1년은 내가 이런 걸 좀 조심을 하고 이쪽은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약간 제 계획 세우거나 그런 거 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사례10)

**영적 존재나 운명에 대한 믿음**

“음.. 딱 신이라고 할 순 없는데 그.. 전 사실 종교를 안 믿거든요. 신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선배로서 더 많이 산 사람이 뭐 조언을 해주면 들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저는 그게 그냥 정말 사람이, 그니까 살다가 우리보다 더 일찍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략> 그니까 죽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혹은 그 혼은 조금 더 많은 뭔가를 그니까 이생에서만 산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걸 뛰어넘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신이라기보다는.”(사례9)

“운명은 70~80%는 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만약에 이변에 고시 합

격할 것이다 그랬는데 자기가 고시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다 틀어 있는데 자기가 선택 안 하면 그만이고 <중략> 아무튼 삶은 이게 다 달라지는 거 같아요. 근데 성향은 좀 비슷하죠.”(사례12)

#### 조언이나 해답을 구함

“또 막상 고민이 생겼는데 이거를 막상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딱히. 그럴 때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지표 같은 느낌, 방향..”(사례11)

#### 점괘가 적중한 경험

“저 같은 경우엔 사실 대학교가서 살다가 집에서 이제.. 할머니랑 원래 살았는데 할머니께서 뭐 병이 큰 병이 나서 집안이 형편이 많이 어려워질거다 이런 식으로.. 그니까 집안에 어르신 누가 많이 아파서 집안 가세가 기울 것이다 근데 그거를 무당이 맞췄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론 더 신뢰하게 된 거 같아요.”(사례5)

### 중심개념 2. 점복의 체험

참여자들이 점을 보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심리적 체험에 중점을 두어 질문을 했고, 참여자들이 보고한 다양한 체험들을 긍정적 체험과 부정적 체험으로 나누어 영역을 구성하였다.

**영역3. 긍정적 체험.**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점을 보면서 겪는 긍정적 체험으로 ‘심리적 해소와 위안’(일반적)을 보고하였고, 점복을 통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나 조언을 얻게 됨’(전형적)으로써 명쾌해지고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많은 참여자들이 점괘를 맹신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참고하여 결정’(전형적)한다고 하였으며, 점복행위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마음의 준비’(전형적)를 하게 되어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경청, 공감, 진실된 모습, 편안함과 같은 ‘점복자의 인간적인 태도’(변동적)가 좋았다는 보고도 있었고,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변동적)어 마음이 안정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으며, 오랜 시간 점을 보면서 자기확신이 생기는 등 ‘심리적 성장’(변동적)에 대한 보고를 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리적 해소와 위안

“그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다 속속들이 내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다 얘기하니까 속 시원하고, 어떻게 보면은 카운슬링 해준다는 느낌..”(사례3)

“그때 당시에는 좀 희망에 부풀어서 와요. 힘든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된다 하니까...그래 우리 이것만 하면 잘 될 수 있어 이러면서 희망에 부풀어서 와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가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약간 의지 하는 거?”(사례13)

#### 조언이나 해답을 얻음

“음. 그러니까 약간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플러스 조언까지 해주는데 그 조언이 약간 신뢰.. 만약에 제가 진로에 대해서 편입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뭐 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편입을 해보는 게 어때? 내가 점괘에 보니 너는 편입을 하면 성공할 운이다. 그러면 위로 플러스 조언 플러스 그 조언이 맞는다는 확신까지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아요. 조언자의 역할로서 까지...”(사례13)

#### 점괘의 선택적 참고와 결정

“저는 이 분야를 하고 싶은데 자꾸 어딜 가서 보면 ‘이 분야는 정말 안 맞고 너는 이 분야야’ 라고 말할 때? <중략>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은 결국 제가 하잖아요. 항상 선택은 제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지도 나름 그러면 이 분야도 괜찮다 그러니까 난 이걸 할 건데 내가 잘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진짜 이건 아닌데? 라면서 그렇게 해도 100퍼센트 그 사람 말을 수용해서 다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사례10)

#### 미래를 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함

“일단 좀.. 이성적으로 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아 내가 이번엔 좀 말조심을 해야겠다, 사람들한테 처신을 잘해야겠다.. 약간 뭔가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좀 더 조심해야겠다, 그렇게.”(사례4)

#### 점복자의 인간적인 태도

“되게 적절한 상담가가 되는 거 같아요. 조금 문제가 있을 때.. 심리학자를 찾아가면, 그니까 병원을 찾아가면은 약 같은 걸 처방해주고 그러기 쉽잖아요. 근데 그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적극적으로 계속 받아주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가게 되는 거 같아요.”(사례7)

운명의 수용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아 요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원인이 있는 게 아닌데 이런 일이 좀 터지니까 이제.. 막연하고 그런 힘든 게 있었는데, 그런 말 들으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아 나한테 그런 게 있나보다, 내가 손 쓸 수 없는 그 이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힘이 드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더 극복하려는 힘이 생겼죠. 뭔가 막연한 게 그나마 덜어지니까.”(사례4)

심리적 성장

“이게 약간 되게 작은 포인트긴 한데 그게 되게 엄청난 전환이 되는 것 같은데, <중략> 지금 계속 나름 많이 들었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뭔가, 그리고 뭔가 자신감을 갖고 그런 쪽으로 하고 싶었으니까 그런 말이 쌓여서 저도 나름대로 저한테 되게 긍정적으로 하고 한 그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기분이 되게 다운되거나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언 5년간 봤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문제도 괜찮을 거야. 아예 고민이 없는 건 아닌데 그 포인트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사례10)

**영역4. 부정적 체험.** 안 좋은 점괘를 들었을 때 불안해지고 미리 걱정하게 되거나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을 때 더 갈등하게 되는 ‘예기불안’(전형적)에 대해 점복의 부정적 체험으로써 가장 많은 보고를 하였다. 또한, 점복에 ‘지나치게 의존’(변동적)하게 되기도 하고, ‘미래에 관한 예측이 불확실’(변동적)해서 점복을 경험할수록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보고도 하였다. 점집이나 점복자의 ‘위압적인 분위기’(변동적)가 불편했다는 보고도 있었고, 굿이나 부적과 같은 ‘부가적인 것을 권유’(변동적)할 때 상업적으로 느껴지고 거부감이 들었으며, ‘경제적인 부담’(변동적) 때문에 짐을 보는 게 후회된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기 불안

“그러는데 그런 거를 미리 보면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사람이 경직되는 거 없잖아요. 미리 앞서서 걱정을 하고..”(사례12)

지나친 의존

“음.. 제가 그때 당시에 한참 점을 많이 볼 때는 엄청나게 영

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 사람이 좋게 얘기를 해주거나 안 좋게 얘기를 해주면은 뭐 어떤 선택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날 하루가 달린 거였어요. 그 사람들의 말에 그날 하루의 기분이 라든지 그날 하루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 수도 있고 뭔가를 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사례6)

“좀 내가 어떤 걸 할 때 내 확신에 차서 내 의지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그런 거 거기서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거기서 말해줬을 때 하려고 하는 게 싫어서 안 가려고요. 또 갈 거 같긴 한데(웃음), 그래서 안 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사례8)

불확실한 미래예측

“아니요, 저는 완전히 신뢰하진 않구요, 솔직히 한 30%? 2~30%만.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어릴 때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그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믿되..”(사례1)

위압적인 분위기

“네. 근데 말하는 화법이 너무, 너무 확신과 너무 약간 강압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데 처음 가봤거든요. 제가 무슨 말하기 전에 그냥 알아서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저는. 그 래가지고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좀 그런 분위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가면은 이렇게 그 모시는 것도 있잖아요.<후략>”(사례10)

상업적 권유에 대한 거부감

“아니 근데 갈 때마다 그런 건 좀 있어요. 굿을 해야지 잘 풀린다고, 굿을 하라고 자꾸 그래서.. 좀 그게 너무 귀찮아서 사실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굿을 해야 돈을 버니까.. 천만원대 이런 굿을 권하더라고요 계속.”(사례1)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돈도 한두푼도 아니니까 이게 갔다 오면은 부적도 해야 되고 좋은 거를 자꾸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인제 갖고 나오면 점점한 이유가 아, 이 돈 갖고, 돈 너무 많이 썼다. 보통 5만원씩 하고 세 군데면 15만원이잖아. 그니까 차라리 15만원이면 나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쓰고 하면 되지, 이게 더 정신 건강에 좋을 걸 괜히 봤다 싶기도 하고.”(사례2)

**중심개념 3. 상담의 경험과 인식**

참여자들에게 상담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경험이

어땠는지,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상담보다는 점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고, 참여자들의 보고를 바탕으로 ‘상담 경험’과 ‘상담에 대한 인식’으로 영역을 구분하였다.

**영역5. 상담 경험.** 13명의 참여자 중 6명의 참여자가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으나, 대부분이 심리검사 해석상담과 같은 1회기 상담과 정신과에서의 치료 경험이었다. 2명의 참여자만이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경험해봤는데, 한 명은 1회기를 경험한 후 중단하였고, 나머지 한 명은 고등학교 때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장기적으로 받은 경험이 있었다. 1회기 후 중단한 경우는 상담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상담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의 보고는 모두 상담자나 치료사의 태도와 관련된 보고였기 때문에 ‘상담자의 부정적 태도를 경험함’(변동적)과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를 경험함’(변동적)으로 범주를 나누었다.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담자의 부정적 태도를 경험함

“아니 제가 상담 받은 분은 너무 객관적이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더 얘기해보세요, 계속 적으시니까 나랑 눈도 안 마주치고, 나는 속상한데 저 사람은 공감은 안 해주는구나 이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나왔거든요. 돈 내고 나왔어요.”(사례7)

####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를 경험함

“일단 내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고 있고, 이해를 해주고, 상담하시는 분은 항상 호응을 해주고, 잘 들어 주고, 왜 그랬는지 공감해주고, 그런 자세에서도 위안을 받고<후략>”(사례12)

**영역6. 상담에 대한 인식.** 많은 참여자들이 ‘비밀보장과 낙인에 대한 불안’(전형적)을 보고했는데, 상담에서 비밀보장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과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었다. 상담에서는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거나, 딱딱하고 형식적일 것 같거나, 혹은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는 편견과 상담을 정신과 치료와 혼

동함으로써 잘못된 개념을 갖는 등 ‘부정적 이미지나 편견’(전형적)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몇몇 참여자들은 상담에 대한 정보를 찾기 쉽지 않고 상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정보의 부족’(변동적)). ‘상담에 대한 기대나 바람’(변동적)을 보고하기도 했는데, 대부분 상담자가 조언을 해주거나 상담자의 관점에서 답을 주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이 외에도 참여자들은 상담을 받게 될 때의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변동적)을 보고하기도 하였고,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족’(변동적)한 경우도 있었다.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밀보장과 낙인에 대한 불안

“정보도 부족하고, 약간 비밀보장이, 사실 점집은 비밀보장 되잖아요. 제가 누군지 모르고. 그런 게 좀 좋은 거 같아요. 그냥 생년월일 정도 이름 쓰고 그러니까. <중략> (상담소는 인적사항을) 쓰고, 이분들은(점복자들은) 그런 말들을 발설 잘 안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상담.. 사람인지라 상담사 이런 사람들은 전 또 이름도 특이하기 때문에 상담소 이런 데서는 사실 세상이 너무 좁으니까 얘기하기도 좀 꺼려지는 거 같아요.”(사례3)

“근데 사람들의 인식이 그런 거 좀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힘든 게 있어서 상담을 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엔 이미 그런 게 활성화 돼있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회 회사에서도 어떤 사람이 <중략> 사람들끼리 치이는 게 너무 많고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런 상담을 받았대요. 상담을 받았는데, <중략> 어느새 그 팀에서 약간 정신병 있는 애로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렇게 소문을 낸 사람들이 진짜 미지한 사람들인데 아직 한국 사람들 인식이 이렇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사례6)

#### 부정적 이미지나 편견

“네, 보통 카운슬.. 그런 상담소라고 생각하면 뭐 딱 가서 열면..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조사받듯이 ‘자, 이제 너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이렇게 그런 거 말고, 그런 형식적인 건..”(사례9)

#### 정보의 부족

“(상담을 받고 싶은 생각이)들었었어요, 그래서 막 알아보고 어디 보건소에도 있다 그래서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어딜 가

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찾아봤는데.. 딱히 모르겠어서..”(사례4)

“(심리상담에 대해)아예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쪽에 갔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사례6)

#### 상담에 대한 기대 및 바람

“내가 정말 내 자신한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게 친구들처럼 대화를 하는데도 해결점을 못 찾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그런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요. 내가 현재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할까, 약을 먹어서 치유가 된다면 약을 먹겠고 아니면 운동을 하라 그러면, 이런 처방 같은 거를 전문가한테 받고 싶은 거죠.”(사례2)

“이미 충분히 너무 많이 봐서 점은 답을 알아요. 근데 상담 같은 거는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다른 답을 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접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접할 수 있을 거 같아요.”(사례6)

#### 시간과 비용의 부담

“그리고 되게 가깝잖아요, 점집은 정말 동네에 다 있고. 근데 상담소는 뭔가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일반 사람들한테 쉬운 건 아닌 거 같아요.”(사례7)

####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부족

“.....좀 약간 편견이 있었는데, 정신적인 거는 본인하기에 달렸다, 그니까 외상적인 건 병원가면 되지 정신적인 건 본인하기에 달렸다고..”(사례5)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젊은 여성들이 어떤 심리적인 요구를 가지고 점복자를 찾아가며, 점복행위를 경험하면서 겪는 심리적 체험과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여서 한국에서의 상담의 토착화와 보편화를 위해 고려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이들의 심리적 요구가 상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탐색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점복문화 속의 한국인의 특성과 상담에 고려할 문화적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한국인들의 주요 사상은

영적 존재나 운명과 같은 초월적 존재나 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점복이 여전히 민간신앙의 형태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참여자들이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기보다는 미리 알아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겠다는 목적으로 점을 보는 것으로 보아 모든 것은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 순환한다고 믿는 순환 사고를 바탕으로 한 한국인의 운명관[17]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운명관을 통해 참여자들은 희망을 갖게 되고, 인생에는 좋고 나쁨의 기복이 있어서 현재의 어려움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운명에 따라 흘러가는 삶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기도 했다.

둘째, 참여자들은 점복자의 말에서 취할 것만 취하며 참고한다고 하였는데, 어느 정도 초월적인 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도 점괘를 목적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이용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의견이나 의심스러운 말은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나 증언만을 증거로 채택(편향확증)하는[18] 경향일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은 잘못을 합리화하거나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게 만든다.

또한, 이것은 점괘를 통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즉각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많은 참여자들이 점복의 긍정적 체험 중의 하나로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조언이나 해답을 얻게됨을 보고했고, 상담자에게 조언이나 좀 더 명확한 가이드를 원하는 것도 유사한 속성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점복자를 통해 해결방법을 듣고 해결해왔던 전통이 이어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몇몇 참여자들은 상담에 대한 기대나 바람을 이야기했는데, 대부분 상담자의 생각이나 조언을 듣고 싶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보아 연령이나 지위를 바탕으로 한 수직적 인간관계 속에서 연장자나 권위자에게 조언을 얻거나 그들의 지시를 따르는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들은 상담자-내담자의 관계도 수직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의 상담관계는 내담자가 선생님과 같은 상담자 상을 원한다는 연구[19][20]와 일치하며, 점복에서와 마찬가지로

로 상담에서도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을 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상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함께 문제해결적 상담을 원하는 한국인의 특성 [21][22]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김창대 외(2008)[23]의 연구에서 이러한 지시적 방식이 장기적인 성과를 보았을 때 내담자의 진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도 있지만, 상담전문가들은 한국 내담자들이 조언이나 지시적 개입에 대한 요구를 가진다는 점, 그리고 이런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상담의 성과와 영향이 있다는 데 공통된 입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참여자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선택에 대해 누군가가 확신을 주고 지지해줄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었다. 많은 참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서' 혹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어서'라고 답하였다. 자신의 내면에 이미 원하는 방향이 정해져있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확신의 부족으로 인해 타인의 지지를 얻어서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동양의 집단주의가 집단 안에서 상호의존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서양인들처럼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에 큰 가치를 두는 것과는 다르게, 선택에 있어서 의존적이고 수동적이며 책임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상담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참여자들의 상담 경험에 관한 보고에서 대부분 상담자와의 관계에서의 경험, 특히 상담자의 태도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이는 상담자가 상담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23-25]과 같은 맥락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은 점복자가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진심으로 걱정하며 조언해주거나 편안하고 푸근한 느낌을 주는 것과 같은 인간적인 모습이 좋았다고 보고했다. 그러한 점복자의 인간적인 태도를 통해서 참여자들은 위로와 힘을 얻었다. 상담자에 대해서도 경청, 공감, 자기개방을 통한 진솔성, 존중하는 태도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선생님 같은 태도를 경험했을 때 좋았다고 보고했다. Carl Rogers가 말한 공감, 존중, 진솔성(일치

성)과 같은 상담자의 태도적 자질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담자의 태도는 내담자의 자각, 감정의 명명, 반영 그리고 자신의 정서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촉진한다. 이런 기술은 내담자의 정서 조절의 발달에 핵심적이고, 대인관계에서 필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데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26].

점복에서는 점복자와 문복자 사이에 신뢰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보다는 상거래 형식이 강한 것[7]과 달리, 상담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상담관계가 상담의 성과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상담자의 태도에 따라 상담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참여자들이 보고한 것처럼 상담에서 공감적이지 못하거나 비판적이거나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상담자를 경험했을 때 겪을 수 있는 마음의 고통과 상처는 상담을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만든다. 점복의 경우는 어떤 점복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른 점복자를 찾아가는 현상을 보이지만, 상담의 경우는 단 한 번의 부정적 경험으로도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점복에서는 미래를 예측하고 해결방안을 주는 점괘라는 수단이 있어서 점복자의 태도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상담에서는 상담자 그 자체가 도구로서 사용되는 특성이 있어서 상담자의 태도나 인성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담자는 비판적, 판단적 태도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공감적 존중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상담의 성과와 직결된다[27].

이를 위해 상담자는 상담의 도구로서 자신을 잘 돌봐야 하는데, 상담자의 적절한 자기 돌봄, 자기관리는 끊임없이 성찰하고 깨어있는 상태가 되도록 노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담자 자신의 성장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다[28].

다섯째, 상담에 대한 인식의 향상이 필요하다. 모든 참여자들의 점복자를 찾아가는 내적 동기가 심리적 지지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유의미한 결과라 볼 수 있는데, 이는 점괘라는 수단을 통한 문제해결의 욕구보다도 심리적 요구를 채우고자하는 욕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참여자들은 불안을 해소하고 위로를 받

으며 심리적으로 의지를 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는 등 심리적 지지를 얻기 위해 점을 본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심리적 요구를 점복을 통해 채우면서 상담에서 얻을 수 있는 심리치료적 효과를 경험하고, 문제해결의 대안을 얻고 있었다.

이처럼 분명한 심리적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로 이어지지 않는 주된 이유는 상담이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정보를 찾기 쉽지 않고, 상담에서 비밀보장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과 사회적 낙인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은선 외(2017)[29]의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이 우울증 회복을 위해서는 치료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하면서도 사회적 불이익과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피력하였다. 아직도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낙인(stigma)문제와 상담을 수치심과 오점의 원인으로 여기는 사회적인 편견과 고정관념, 상담에 관한 정보부족과 잘못된 정보로부터 형성된 상담에 대한 오해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30].

사람들이 실제로 상담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상담이라는 과정에 대해 위험이 적고 도움이 된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지지자원이 궁극적으로 유용하고 믿음만한 것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상담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중 보건적 관점에 의거한 캠페인과 Gate keeper training과 같은 교육 등을 통해 정신건강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상담서비스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31]. 상담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상담을 받으러 오기까지 자꾸 발걸음을 부여잡는 막연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대중 홍보를 통해 상담의 유용성을 인식하도록 돕고, 상담장면에서 그들의 두려움과 주저함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32]. 상담실을 찾는 많은 내담자들 중에도 상담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한 채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이 무엇인지, 무엇을 목표로 하며, 상담이 어떤 과정을 거치며 진행되는지에 대해 상담초반에 구조화가 확실히 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참여자들이 언급한 상담에서의 비밀보장에 대

한 불안은 상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비밀보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상담관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담자들이 윤리규정을 중시하고 윤리적 책임에 대해 더욱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33].

김동일, 이명경(2004)[34]의 연구에서 상담실 운영 책임자들은 공통적으로 홍보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성공적인 상담 사례를 꼽았다. 내담자들은 상담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보다는 상담자 개인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상담실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의 효과와 상담자의 실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이전 내담자들이 계속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상담을 권유하는 것이 상담실 홍보에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이다. 즉, 개개의 상담실 홍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담 자체에 대한 홍보와 함께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으로써 상담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담자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자기성찰과 자기관리를 통해 자기 자신을 효과적인 치료적 도구로써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상담자의 지속적인 자기 성찰은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힘의 원천이자 전략이기도 하다[23].

점복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문제해결과 위약효과만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점복에 의존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점복의 만남은 일회성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참여자들이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후련해지는 심리적 해소와 환기를 경험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표면만을 이야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점복자를 찾아가고 싶은 의존심이 조장될 수 있다. 판단 불가능한 곤경에 빠지면 점복의 수단에 매달리는 습성은 미지의 운명을 기다리고 견디며 살아가는 인내심의 부족, 무조건 점복에 매달리는 의존심의 조장, 피암시성의 향진, 자기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용기의 부족 등 인격의 성숙이라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을 지닌다[35]. 점복의 이러한 역기능은 불필요한 에너지와 비용의 낭비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상담 방향은 한국 내담자들의 즉각적인 문제해결과 방향제시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좀 더 지시적이

고 적극적인 개입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객관적인 시각에서 여러 경우의 수를 제시하면서 내담자와 함께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내담자의 의존성향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적절히 개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에서도 한국인의 운명관을 인정해줌으로써 안정을 되찾게 해주면서도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건강하게 독립된 한 명의 개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즉,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를 적절히 균형을 맞추어 사용하면서 운명의 수용을 통해 내담자가 겪는 고통에 대해 억울한 마음에서 벗어나 극복의 의지를 갖도록 도울 수 있다. 상담 초기에 구조화를 명확히 하여서 내담자의 상담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필요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Carl Rogers가 말한 공감, 존중, 진솔성(일치성)의 상담자의 태도적 자질을 충분히 갖추어 상담자 자신을 치료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통하여 내담자들에게 본이 되는 멘토나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상담자 자신의 인격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한 내담자의 인격적 성장과 자아의 실현이 개인 그 자체의 선택과 자유에 대한 강조보다는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맥락적으로 자신을 발견 [36]하고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독립된 한 개인이면서도 집단의 조화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면 우리의 문화를 고려하면서도 내담자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상담이 가능할 것이다. 이로써 상담의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증가시키고 전반적인 인식을 높이는 일이 요구되는 바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30대 여성이었으나, 30대는 13명 중 3명으로 20대에 크게 치우쳐져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다소 어려운 경향이 있다. 또한, 서울에 치우쳐진 지역적 제한도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각 참여자들의 심리적 특성이나 성격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못했다. 참여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확인한

후 인터뷰를 진행하여서 심리적 특성에 따라 점복을 경험하는 양상이 다른지를 확인했다면 더욱 구체적인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점복문화에 내재된 문화적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점복을 경험하는 사람들만을 연구대상으로 모집하였으나,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점복자를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의 경험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했다면 더욱 풍부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 문헌

- [1] 38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회, 헤럴드경제, 2016.2.16.
- [2] 이미선, *한국적 상담이론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3] 김영재, *점복문화 배경의 여성 내담자를 위한 상담전략의 모색 - 근거이론적 접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b.
- [4] 홍희기, *한국적 상담이론의 정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5]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운세서비스 관련 조사보고서*, 2012.
- [6] 박경애, 조현주, “한국대학생의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생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Vol.15, No.1, pp.3-15, 2007.
- [7] 장성숙, “토속신앙과 상담의 관계: 점복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17, No.3, pp.735-749, 2005.
- [8] 박은경, *점복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과 점복에 대한 태도에 따른 심리적 특성*,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9] 김영재, “역리점복을 경험한 내담자의 체험연구 - 역리점복의 상담적 현상에 대한 예비연구,”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인간이해, 제24호, pp.24-49, 2003a.
- [10] Clara E. Hill, B. J. Thompson, and E. N. Williams,

-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25, pp.517-572, 1997.
- [11] 장유진, 최보영,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이 상담 서비스 이용 여부에 미치는 영향,” *교육방법연구*, Vol.23, No.1, pp.151-173, 2011.
- [12] 최운식, “점복신앙의 의미와 원리,” *國際語文* 第16輯, pp.363-371, 1995.
- [13] Clara E. Hill,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mer Psychological Assn, 2011.
- [14] 정혜인, “중년 여성의 꿈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상담 장면에서의 꿈 활용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Vol.19, No.2, pp.137-159, 2014.
- [15] 주은선, “다문화 상담 관련종사자 경험 연구와 연구방법의 재고,” *가족과상담*, Vol.1, No.2, pp.41-55, 2011.
- [16] 양미진, *질적 분석을 통한 비자발적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지속요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17] 김태곤 외 공저, *한국의 점복*, 서울: 민속원, 1995.
- [18] 김선호, “사이비과학과 점성술 비판,” *哲學研究*, Vol.89, pp.91-110, 2004.
- [19] E. Joo and D. E. Orlinsky, “The psychotherapeutic relationship in different cultures,” *psychotherapy East and West: Proceedings of the 16<sup>th</sup>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therapy*, revised edition, Seoul: Korean Academy of psychotherapists, pp.70-79, 1994.
- [20] 이은경, 양난미, 서은경, “한국에서의 상담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19, No.3, pp.587-607, 2007.
- [21] B. Li. Kim and C. Liang, “Effect of Asian American client adherence to Asian cultural values, session goal, and counselor emphasis of client expression on career counseling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9, pp.342-354, 2002.
- [22] E. Joo, “Psychotherapy in South Korea: A Preliminary Exploration of Past, Present and Future Challenges,”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25, No.2, pp.103-120, 2006.
- [23]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 *상담학연구*, Vol.9, No.3, pp.961-986, 2008.
- [24] 박정민, 유성경, “상담자의 회기 내 자기지각이 상담과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19, No.1, pp.31-53, 2007.
- [25] D. M. Kim, Bruce E. Wampold, and Daniel M. Bolt, “Therapist effects in psychotherapy: A random-effects modeling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Treatment of Depression Collaborative Research Program data,” *Psychotherapy Research*, Vol.16, No.2, pp.161-172, 2006.
- [26] 연문희, “미국 심리치료분야에서 Carl R. Rogers의 영향력,” *인간이해*, Vol.30, No.2, pp.1-19, 2009.
- [27] 장재홍, 권희경,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과 상담자 태도가 상담과정 및 상담성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14, No.3, pp.487-509, 2002.
- [28] 최해림, “상담자의 자기돌봄,” *인간이해*, 제30호, No.1, pp.1-19, 2009.
- [29] 주은선, 조영임, 김단비, 강유진, “우울증 경험과 회복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7, pp.505-526, 2017.
- [30] 박애선, 황미구, “한국 상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발전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20, No.4, pp.903-929, 2008.
- [31] 고정애, “자살생각을 가진 성인의 도움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9, pp.77-87, 2017.
- [32] 신연희, 안현의,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서 접

근요인과 회피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고찰,”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17, No.1, pp.177-195, 2005.

[33] 김화자, “한국과 미국의 상담윤리규정 비교 연구,” 복음과 상담, Vol.22, No.1, pp.9-50, 2014.

[34] 김동일, 이명경, “수도권 사설 상담실의 현황 과 운영에 대한 탐색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Vol.5, No.1, pp.81-103, 2004.

[35] 이부영,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한길사, 2012.

[36] 주은선, 이해경, 주은지, “한국적 인본주의 상담 모형 모색- 인본주의 상담자들의 자기-보고 중심 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19, No.3, pp.569-586, 2007.

#### 저 자 소 개

채 가 영(Ga-Young Chae)

정회원



▪ 2016년 2월 : 덕성여자대학교 일  
반대학원 심리학과(문학석사)

<관심분야> : 상담과 문화, 상담자 발달, 인간중심상담

주 은 선(Eunsun Joo)

정회원



▪ 1997년 : 미 Chicago대(박사)  
▪ 1993년 : 미 Chicago대(석사)  
▪ 1998년 ~ 현재 :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 상담과 문화, 상담자 발달, 인간중심과  
포커싱